

연예뉴스 HOT 5

홍진영 논문 표절 잠정 결론…18일 자동 취소



홍진영

가수 홍진영이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잠정 결론을 받았다. 15일 조선대는 대학연구윤리원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홍진영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해 표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진영에게 18일 오후 5시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홍진영은 2009년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조선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측이 다음주 표절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학위는 자동 취소된다. 그는 앞서 표절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면서도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능프로그램 MBC '한수우면 다행이야'와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하차할 전망이다.

머라이어 캐리 캐럴 첫 美·英 차트 동시 석권

'성탄 스테디셀러'로 불리는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미국과 영국의 팝음악 차트를 동시 석권했다. 15일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픈셜 차트에 따르면 이 노래는 19일자 싱글차트 1위를 차지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두 차트 정상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1994년 나온 노래는 지난해 말에도 빌보드 싱글차트인 '핫100' 1위를 기록하는 등 성탄절 시즌에 꾸준히 인기를 모았다.

박진영·비, 새해 첫 날 '아침마당'서 토크 대결



비·박진영

연예계 절친이자 사제지간으로 최근 듀오를 결성한 가수 박진영과 비가 새해 첫날 아침 토크프로그램에 나선다. 두 사람이 내년 1월1일 오전 8시25분 방송하는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한다. 이들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들의 신곡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특히 이번 방송을 위해 특별한 의상을 준비하고 생방송으로 무대를 펼친다. 2000년대 초중반 박진영은 JYP엔터테인먼트를 이끌며 비를 '월드스타'로 키워냈다. 이날 방송에서 이에 얽힌 뒷이야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민아, 화상환자 위해 매년 1억씩 6년간 기부



신민아

배우 신민아가 6년 동안 화상환자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선행을 이어온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따르면 신민아는 2015년부터 최근 해마다 1억원을 기부해 114명의 화상환자들이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직접 병원을 찾아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화상환자들은 막대한 의료비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림화상재단 윤현숙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신민아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덕필름 “故 김기덕 감독 보도·댓글 유감”

김기덕 감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11일 라트비아에서 숨진 가운데 김기덕필름이 이와 관련한 일부 보도와 댓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기덕필름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장례는 대사의 도움을 받아 유가족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김 감독의 배우 폭행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연기 지도를 위해 배우의 뺨을 때린 행위만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을 뿐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무분별한 의혹과 비난을 삼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해외 영화계 잇단 호평…‘미나리’는 어떤 작품?

“세계인이 공감할 한인 이민가족 이야기”

브래드 피트의 ‘플랜B엔터’ 제작정이삭 감독 경험 바탕으로 연출 해외에서도 낮익은 배우들 출연

윤여정과 한예리, 스티븐 연 등이 출연한 영화 ‘미나리’가 수상 등 해외에서 잇단 성과를 거두고 영화와 배우들이 내년 아카데미상의 후보로도 유력하다는 예측이 쏟아지면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올해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극장 입장이 제한되면서 극소수 관객만이 관람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일부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는 내년 상반기 국내에 선보일 예정으로, 벌써부터 기대감과 호기심을 키운다.

●브래드 피트가 제작한 미국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에 희망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어린 아들의 시선으로 그렸다. 연출자 정이삭(리 아이작 정) 감독의 경험 이 이야기의 바탕이 됐다. 정 감독은 할리우드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계이다. 여기에 배우 윤여정, 한예리, ‘옥자’와 ‘버닝’으로 낮익은 스티븐 연 등이 출연했고, 대부분 대사 역시 한국어이다. 이 때문에 ‘한국영화가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도 낳고 있다.

‘미나리’는 할리우드 스타이자 제작자인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 플랜B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미국영화이다. 제작비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규모로 완성한 ‘저예산영화’이다. 또 현지 중견배급사 A24가 북미지역 배급을 맡았다.



영화 '미나리'의 한 장면. 주연 한예리(왼쪽)는 최근 미국 영화전문지 할리우드리포터로부터 '올해의 위대한 연기'라는 찬사를 받았다. 사진제공 | 판씨네마

●“스토리의 보편성 획득”

영화 제목은 들판이나 개울 등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자라나는 작물 미나리를 뜻한다. ‘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며, 생면부지의 땅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극중 가족을 가리킨다. 한국계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 삼고, 스티븐 연이 제작자로도 참여하면서 이민 한인가정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을 높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랜B의 크리스티나 오 프로듀서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올해 영화를 초청 상

영한 부산국제영화제 남동철 수석프로그래머는 15일 “어떤 가족이든 겪을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면서 “윤여정, 한예리 등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도 좋다”고 말했다.

●수상 등 해외 잇단 호평 속 아카데미까지?

영화는 올해 미국 선댄스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대상과 관객상을 시작으로 최근 윤여정의 보스턴비평가협회상과 섀넌 서울 어워즈 여우조연상 잇단 수상, 버라이어티·인디와이어 등 세계적인 영화전문 매체들의 ‘올해의 영화’ 선정

등으로 호평 받고 있다.

각 매체들은 영화와 감독 및 배우들이 내년 아카데미상의 주요 부문 후보로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또 제작사 플랜B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A24가 그동안 ‘문라이트’와 ‘노예 12년’ 등을 제작, 배급하며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받은 이력도 관측에 힘을 더한다. 윤여정의 보스턴비평가협회상 수상은 전미비평가위원회와 뉴욕비평가협회 등이 내년 초까지 주관하는 영화상까지 기대하게 하면서 앞서 이를 휩쓴 ‘기생충’의 길을 따를 것이라는 ‘기시감’도 낳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논란의 ‘쇼미더머니9’…예능 영향력 1위 등극

스윙스·래원·머쉬베놈·릴보이

18일 래퍼 최종 4인 파이널 무대 초반 논란 딛고 합합 파급력 입증

논란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강했다.

18일 최종회를 남겨둔 엠넷 합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9’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일부 출연자의 대마초 흡연과 ‘악마의 편집’ 등 논란 속에 방송을 이어온 프로그램은 음원과 화제성 순위에서 성과를 내며 파급력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란이, 머쉬베놈 등 새로운 ‘합합스타’를 발굴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쇼미더머니9’는 18일 생방송 파이널 무대를 통해 스윙스, 래원, 머쉬베놈, 릴보이 가운데 우승자를 가린다. 이들의 화력은 11일 치른 세미파이널 방송 이후 유튜브에서

도 확인됐다. 머쉬베놈의 ‘고독하구만’, 스윙스의 ‘악역’ 등 영상이 공개 3일 만인 15일 오후 모두 300만 조회수를 훌쩍 넘겼다. 관심은 화제성 순위에도 반영됐다. CJ ENM이 14일 발표한 콘텐츠 영향력 지수(CPI·11월30일~12월6일)의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예능 톱50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음원차트에서는 우승 후보로 꼽히는 릴보이와 함께 준결승에 머문 미란이의 활약이 돋보였다. 미란이와 릴보이가 경연에서 각각 부른 ‘VVS’와 ‘내일이 오면’이 1·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또 다른 14곡의 경연곡이 음원차트 100위 안에 포진해있다.

위기감을 확실히 지워낸 분위기다. 방영 초기에는 시즌7 우승자 나팔리를 비롯한 전 시즌 참가자들이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고질병으로 지목받은 이른바 ‘악



쇼미더머니9 심사위원들

마의 편집’ 논란에도 휘말려 스윙스는 2회 방영 직후 자신의 무대가 “난도질”됐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경연이 거듭되면 서 음원을 유행시키는 데 유리한 지점을 지닌 방송 콘텐츠의 힘이 발휘된 결과이다”고 분석했다. 다만 “합합 장르의 소비층에게는 호평을 얻었으나 래퍼 로꼬·비와이 등을 배출한 초반 시즌과 비교하면 보편적인 시

청자까지 흡수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합합을 경쟁의 소재로만 소비하는 데 그친다”는 일부 시청자의 비판 속에 합합장르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는 시선도 나온다. 스윙스는 최근 SNS를 통해 “어쨌든 다 같이 합합을 살리고 있는 것은 맞다”며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공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안방 1열’에서 즐기는 언택트 연말 콘서트

BTS·할시·라우브 등 온라인 협업
故 신혜철 기리는 헌정무대도 준비

감염병 대유행으로 가수들의 연말 콘서트가 대거 취소된 가운데 생생한 현장감을 기대했던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온라인 공연이 잇달아 펼쳐진다. 무대에 오른 스타들과 직접 눈을 맞출 수는 없지만,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 매운 공연을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안방 1열’에서 교감할 수 있다. 침이 뭉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러도 된다.

세계를 제패한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유명 해외 아티스트의 협업무대를 안방극장에서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이 31일 ‘2021 뉴 이어서 이브 라이브’를 열고, 팝스타 할시·라우브·아오키 등과 ‘글로벌 커넥트 스테이지’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We’ve connected)는 주제로 온라인 콘서트를 펼친다.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레이블 소속 가수들의 연말 합동 콘서트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뉴이스트·여자친구·엔하이픈 등도 출연한다.

고 신혜철을 기리는 헌정무대도 준비 중이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홀로그램



2021 뉴 이어서 이브 라이브

램을 통해 신혜철과 방탄소년단 등이 클래식 버전인 무대를 구현한다. 신혜철의 히트곡 ‘그대에게’와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머야’를 협연한다. 특히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머야’는 고인이 생전 미완성한 작품으로, 이를 새롭게 구현한 ‘프로토타입’ 방식

으로 세상에 나온다. 15일 빅히트는 “시간과 공간, 세대를 음악으로 연결하는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완성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4K 또는 HD의 고화질로 즐길 수 있고, 6개의 서로 다른 카메라 앵글을 실시간으로 선택해 감상할 수 있는 ‘멀티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선보인다.

최근 오프라인 공연을 취소하고 온라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승환이 다시 무대로 향한다. 21일부터 23일까지 크리잉넷, 이날치를 비롯해 데드버튼즈, 메썬드, 세이수미 등 인디 밴드와 함께 ‘인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합동공연을 펼친다. 유튜브와 네이버TV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